



광주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 발행 첫날인 3일 광주 북구청 광장 부끄머니 광주은행 출장버스에서 광주 북구 직원들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부끄머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북구 소재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50만원권을 41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18%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광주북구제공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희비'... 가맹점 수가 성패 갈랐다

지역화폐 발행에 나선 광주 자치구들이 일찌감치 '완판' 기록을 세우거나 앞둔 반면, 10%대 발행률에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등 상반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광주시 산하 자치구들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100억원 규모의 '부끄머니'를 발행한 북구는 할인율 18%와 지역 내 가장 많은 2만여 가맹점을 앞세워 판매에 돌입, 6일 만인 전날 오후 3시께 '완판'을 선언했다. 동구도 이보다 앞선 지난 9월22일 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동구랑페이'를 발행, 판매 중이다. 북구와 같은 할인율 18%에 가맹점 수는 3267곳이다. 발행률은 이날 기준 약 94%를 기록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모두 판매될 전망이다. 동구와 같은날 30억원 규모의 '남구동행카드'를 발행한 남구는 이날 기준 절반

북구, '부끄머니' 발행 6일 만에 100억 전량 소진 기록 동구도 '동구랑페이' 발행률 94%... 이주 내 '완판' 전망 남구 50%, 광산구 10%... 적극 홍보·가맹점 확대 전략 온누리상품권 정부 지원 중단 반사 이익 기대 심리도

가량을 판매했다. 902곳 상가가 가맹점으로 지정된 가운데 150여곳이 추가 지정 심사를 받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5일 100억원 규모의 '광산사랑상품권'을 출시, 발행률이 이날 기준 약 10%(10억9100만원)에 머물고 있다. 가맹점 수는 3912곳이다. 서구는 지역화폐 발행 대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지역 상권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1만1400여 개 가맹점을 확보했다. 자치구별 발행률이 천차만별로 나타나

면서 분위기도 엇갈린다. 북구와 동구는 이날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성과를 홍보했다. 두 자치구는 상인회·전통시장·소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가맹점 확보 캠페인과 현장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동구는 총장축제 현장에서 홍보·할인·환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반면 판매가 부진한 자치구들은 가맹점 수가 발행률과 직결된 것이 아닌가 보고 확대에 주력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동취재부

남구는 발행 이후 현재까지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절반밖에 판매하지 못한 배경으로 초기 가맹점 확대 전략을 들었다. 남구 관계자는 "발행 초창기에는 전통시장 위주 가맹점 지정에 나서다보니 폭넓은 지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매주 가맹점을 100여 곳씩 늘려 발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도 "가맹점 확충을 위한 노력은 물론, 정부가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화폐 수요가 점차 늘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화폐 100% 발급을 마무리지은 북구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할인율·규모로 재발행할 계획이다. 동구도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늘어난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편성, 50억 원씩 나눠 2회 발행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부

'광주 AI 승부수' NPU센터 첫 단추, 타당성 조사 예산 20억 국회 예결위 논의 통해 예산 반영 적극 요청 정부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 긍정적 답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에 실패한 광주시가 국가신경망처리장치(NPU)컴퓨팅센터로 전략을 수정한 이후 정부에 예산 20억원 반영을 요청하면서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미래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NPU전용컴퓨팅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이후 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2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예산은 국가NPU컴퓨팅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사업비로 국내·해외 NPU시장, 관련 기업 등의 기술성, 광주에 설치할 경우 부지 적정성, 전력 공급 방안, 냉각방식(공냉식·수냉식), 총 사업예산 수립 등의 연구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광주에 '국가NPU컴퓨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 이후 국무총리 등이 확실한 후속 조치와 신속한 이행계획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국가NPU전용컴퓨팅센터·국가AI연구소·국가AI데이터센터 자원 및 시설인력 고도화·스마트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4가지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 되어야만 광주시민이 정부의 약속을 믿을 것"이라며 예산 반영 계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 장관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재 광주시와 협력해 AI반도체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소요와 사업 여건 고려해 종합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5·18 사적 옛 적십자병원·국군병원, 보험·안전·소방 '뒷전' 안전 D등급에도 매년 개방 행사, 안전점검은 소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과 국군광주병원이 보험과 안전, 소방점검 등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서명숙(민주당·남구1) 의원은 광주시 자치행정국·시민안전실·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5·18 사적지에 대한 보험·안전·소방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두 건물 모두 매년 특별전시가 열리지만, 배상보험 가입도, 안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소방계획도 부재상태"라며 "시민들의 기억이 서린 공간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광주가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치행정국은 영조물 배상공제 미가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시민안전실은 제3종 시설물의 등록과 안전 실태 조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민주평화국은 시민 개방 전시행사 당시 안전관리를 선입하지도, 소방서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국군광주병원은 건축물대장조차 없어 법적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전기·가스·소방 등 법적 점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시민이 출입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행정의 구조적 무책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보험은 원천적으로 가입해야 했는데, 건물이 폐쇄돼 있고 용도기능도 상실된 상태다보니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개선을 약속했고, 소방본부 측은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